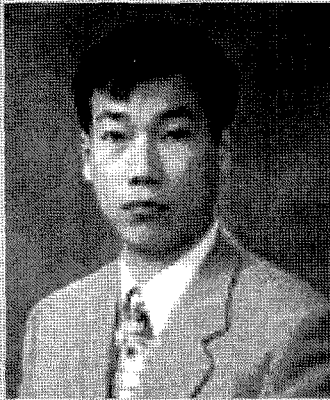


온실가스 인벤토리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그린 IT건설팅 에너지 다소비 포장업계 철저히 준비해야



서형수

(주)카이트엔지니어링 기후변화연구소 소장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협약’ 등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포장업계에도 기후 온난화에 대해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을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 컨설팅업체인 (주)카이트엔지니어링 서형수 연구소장을 만나 포장업계의 기후변화 종합 대응 방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주)카이트엔지니어링은 현재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과 저감 잠재량 등에 대한 전략을 구축하는 녹색경영컨설팅, 전과정평가 및 에너지진단을 하는 지속가능컨설팅 그리고 환경경영관리시스템과 온실가스인벤토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린 IT건설팅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종합 컨설팅 업체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강원, 충북, 경남, 인천 등 4개시도의 기후변화 종합대응계획을 수립했고 (주)롯데햄의 탄소라벨링, 한라산업개발의 CDM 타당성, 포장협회 회원사인 필맥스 구미공장의 온실가스인벤토리를 구축하는 등 녹색경영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카이트엔지니어링은 우리나라 광역시도의 기후변화 종합 대응 계획을 환경부와 지자체 과제로 수행했다는 데 타 업체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서 소장은 “카이트는 환경부나 지자체가 의도하는 방향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산업체가 환경부나 지자체와 함께

기후변화에 동반하여 나아갈 방향을 충분히 제시 하면서 컨설팅을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지속 가능경영이 되기 위하여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전 산시스템으로 관리되도록 온실가스 인벤토리 중 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고 전했다.

컴퓨터공학 박사과정을 마친 서형수 소장은 지속가능한 녹색경영을 위해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 2008년부터 (주)카이트엔지니어링 연구소장을 재직하며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한림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서 대학원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피할 수 없다면 부딪쳐라는 말이 있듯이 저탄소 녹색성장은 피할 수 없이 우리가 탄소를 줄이면서 환경인 녹색으로 가면서 동시에 경제인 성장을 해야 하는 부딪칠 수 밖에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는 서형수 소장.

그는 포장업계의 경우 직접적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는 않고 간접적인 전기와 스팀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국가차원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을 위한 화석연료량이 전체 화석연료 사용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국가에서 전기와 스팀 사용료를 인상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인건비가 비싸서 자동화되지 않는 업종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라졌듯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는 업종, 이것이 단순히 굴뚝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 만큼, 우리 업

계 역시 사항산업의 기업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카이트엔지니어링은 지난 해 10월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인 필맥스와 기후변화협약 공동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활동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저탄소 녹색경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카이트엔지니어링은 필맥스 구미공장으로 온실가스 배출원의 경계를 설정, 온실가스 배출원을 보일러와 같은 고정장비에서의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배출, 필맥스 소유의 차량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측정하는 이동연소 부문, 제품 생산의 공정의 화학반응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측정하는 공정배출과 냉장고나 소화기에서 배출하는 탈루배출인 직접배출량을 조사했고 구매한 전력이나 스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측정하는 간접배출량을 조사했다.

서형수 소장은 “포장업계는 에너지 다소비업종이므로 배출액이 적더라도 관리업체에 준할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전 산업계가 지구온난화에 대해 수많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역시 적극적으로 이에 동참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다.

“포장업계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초기 인벤토리 구축 등 구체적인 사업과 전략을 수립하여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가짐으로써 국가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해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서형수 소장. (주)카이트엔지니어링이 국내 포장산업계는 물론 전 산업계 "녹색성장의 파트너"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해 본다. [ko]

◆ 서형수 소장의 포장업계 대응 방안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이 가장 우선시 됩니다. 자신의 정확한 점수를 알고 있어야만 공부의 방향이나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한다는 일종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포장업계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행-실적보고 및 점검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첫째, 포장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파악 및 전망이 필요합니다. 이는 포장업계의 이산화탄소와 메탄 그리고 아산화질소 등 6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산정하고 향후 배출량을 추정하여 온실가스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인벤토리를 구축하여야 하며 또한 전산 시스템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포장업계의 외부환경 분석 및 내부여건이 분석되어야 합니다. 이는 포장업계의 내부역량 및 여건과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 글로벌 시장의 변화,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관련 기술의 변화 등 외부환경을 고려하여 위협요소와 기회요소 파악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인벤토리 구축을 통하여 공정개선 등으로 저감된 이산화탄소량이 많다면 온실가스배출량에 대한 국내외 정책인 CDM 사업을 수행하여 국제적으로 크레딧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 전략수립을 위한 방향설정입니다. 이는 포장업계의 장기적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강약과 위험 및 기회 분석을 통해 포장업계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방향 수립하는 것입니다. 넷째, 포장업계의 기후변화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전략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과 조직 구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포장업계의 기후변화 대응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략방향에 기초하여 중요도와 추진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축된 기후변화 대응체계하에서 이행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관리는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녹색경영관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